

한국 우언산문에 나타난 자연물 모방의 경향과 특징

윤주필*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주요 우언작가의 우언 작품 소재에 대한 계량적 고찰
3. 우언 소재의 주제 구현 양상
 - 3.1. 이[螽]와 개[犬]의 대비
 - 3.2. '개'와 '이'의 우언 제재(題材)적 구실
 - 3.3. 우언의 비유소(比喩素)로서 '개'와 '이'의 의미 확장
4. 마무리

<국문초록>

한국 우언산문의 소재는 인물, 자연물, 인공물, 추상물로 대별된다. 샘플 201개 작품에서 그것들의 비중은 각각 51%, 38%, 12%, 11%를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 인물 중에서는 역사적 가상인물이, 자연물 중에서는 동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작품 수에 대한 역사 가상인물의 비중은 22%인 데 비하여 동물의 비중은 30%에 달했다. 한국 우언산문에서 동물 우언의 비중이 의외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동물 종류로는 개 > 쥐/고양이 > 호랑이/말 > 여우/소/두더지/거북·자라/이·벼룩 등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다.

우언의 소재는 비유체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題材) 구실을 한다. 우언을 하나의 비유담이라 볼 때 그것들은 비유소(比喩素)라 부를 만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규보의 <슬견설> 등을 시발점으로 삼아 '개'와 '이'라는 소재가 한국의 고전우언 작품의 주제를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해 두루 살폈다. 그 결과 각 작품들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 전환의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1)개는 이로운 동물이고, 이는 해로운 동물이다. (2)개와 이는 사람에게 아주 친숙한 동물로서 인간과 더불어 다같이 살기를 좋아하는 존재이다. (3)개도 해로운 측면

* 단국대 국문과 교수

이 있는 동물이고, 이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동물이다. (4)개와 이는 인간의 역사, 당대 사회에 건주어 볼 때 더 큰 의미가 있다.

위 우언을 고찰한 결과 동물의 비유소는 사람이 만물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하고, 사람끼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특정 동물이 사람에게 이롭다고 좋아하고 해롭다고 꺼리는 것은 사람만의 고정된 편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의 시발이 되었던 이규보와 그 작품에 나타난 사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고찰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을 괴롭히는 해충들의 존재를 조물주에게 따지는 내용의 또 다른 우언 <문조물>은 하찮은 일의 깊숙한 의미를 파진 작품으로서 주목된다. 만물은 애초 만들어진 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새롭게 창조되며, 그러한 창조의 반복 과정에 오직 '나'라는 존재가 당당히 참여한다는 인식을 우의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주제어 인물 우언, 동물 우언, 자연물 모방, 이규보, 제재(題材) 혹은 비유소(比喩素)로서의 개[犬]와 이[蟲], 사유도구로서의 우언

1. 들어가는 말

우화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종류이다. 19세기 이래 설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도 우화는 매우 중요한 설화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다. 동물담이나 단순 형식의 민담을 우화로 규정하는 사례가 종종 관찰된다.¹⁾ 이야기에서 동물을 의인화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신격 등이 주체가 되는 것보다 원시적이면서도 선명한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

1) 조희웅, 『(증보개정판) 한국 설화의 유형』(일조각, 1996.) pp.12~23에 톰슨, 시도우, 關敬吾, 장덕순, 최인학, 조희웅의 설화 분류안을 소개하였다. 이들 분류안에 동물담이 모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특히 스웨덴의 시도우(C.W.von Sydow)는 산문전승을 구조적으로 복합 삽화 형식과 단일 삽화 형식으로 대별하고 후자를 우화로 간주하면서, 동물우화, 해학우화, 비유우화로 세분하였다.

다. 인간문명의 대상으로서 자연물 중에서도 유독 동물이 이야기에서 중시된다는 점도 그만큼 동물이 인류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문학사에서 자연물이 제재로 작용하는 작품에 대한 이러저러한 학문적 관심은 정당하고도 중요하다.

반면 우언은 우화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우화는 장르론적으로 서사류에 속하는 설화의 한 범주인데 비하여, 우언은 서사와 교술의 중간에 걸쳐 있는 지식인들의 글쓰기 방식이자 그 결과물이다. 서사라는 공통점을 강조하여 이해한다면, 우화는 민간에서 주도된 ‘설화 우언’이며 우언은 지식인 작가에 의해 주도된 ‘창작 우화’라고 교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한국 우언에서 자연물이 얼마나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언의 몇 가지 특징을 밝혀보고자 집필하였다.

우언은 겉으로는 한 가지를 말한 것이 속으로는 두 가지 이상으로 말해지도록 의도적으로 꾸민 언설이거나 이야기이다. 언어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기표가 둘 이상의 기의와 연관되는 텍스트이다. 수사학적으로는 모든 비유법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우언은 기의의 다중성이 전면적이어서,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표와 기의의 다중적 연관성이 지속적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부분적 수사와 다르다.

또 우언은 특정한 문체나 양식을 고수하지 않는다. 운문과 산문, 혹은 한문학의 사부(辭賦)나 국문학의 가사(歌辭)와 같이 교술적 운문의 영역까지 넘나든다. 그러나 한문문명권에서는 대체적으로 우언산문이 우세한 편이다. 이는 운문체 우언의 알레고리가 발달한 유럽문명권이나, 산문의 우화(寓話)와 운문의 결사(結辭)가 결합하는 특징을 지녔던 인도문명권의 경향과 대비된다.

한국 우언산문은 역대문집, 총집류 및 단행본, 고소설, 근대계몽기 구활자매체물, 현대 단행본류 등에 다양하게 실려 있어 광범위한 분포를 보인다.

다. 2005년 이후 본인은 학진 지원의 연구 사업의 책임연구자로서 해당 작품들의 정보들을 검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역대문집에서 845편, 총집류 및 단행본에서 372편, 고소설류에서 59종, 근대계몽기 구활자본에서 122편의 목록과 서지사항을 확보하였다.²⁾ 이본의 각 편수나 일부 중복되는 작품 수를 무시한다면 전체는 1400편에 이른다. 이것은 물론 전수 조사라고 하기는 힘들며 우연시가와 현대 소설 및 희곡작품들도 제외되었지만, 현재의 학계 연구역량으로서는 그나마 최선을 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주요 우언작가의 우언 작품 소재에 대한 계량적 고찰

본고는 우언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경향을 조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하나로 주요 작가의 우언산문을 통해 그 경향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룰 작품은 『삼국사기』에 수록된 <귀토지설> <화왕계>로부터 임춘, 이규보, 혜심, 이곡, 정도전, 권근, 강희맹, 성현, 김정국, 조식, 최연, 홍성민, 임제, 고상안, 이서우, 이광정, 심익운, 윤기, 이원조, 허진, 허유, 이기 등의 주요 작가에게서 검색된 우언작품의 총합인 201개 작품 분량이다. 이들 작가의 한자 이름 및 생몰연대, 작품 서지와 특기사항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본 논문의 부록으로 첨부한 목록표에서 제시한다.

201개 작품에는 짝막하나마 이야기의 주인공 혹은 그것의 대상 존재로서 자연물, 인공물, 인물, 추상물이 등장한다. 우언 한 작품에는 그것이 대개 한, 둘에 그치고 많아도 같은 종류로서 4~5개에 그친다. 단, 자연물은

2) 윤주필 주편, 『한국 우언산문 선집 2』(박이정, 2008) 부록 CD(한국 우언산문 총목록) 참고.

동물, 식물, 무생물과 같은 자연적 존재, 인공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 인물은 역사적이나 혹은 일상적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추상물은 관념적으로 인식되거나 초자연적으로 체험되는 존재를 가리킨다. 이들이 전체 201개 작품에 등장하는 분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물: 76개 작품, 38%
 인공물: 22개 작품, 11%
 인물: 103개 작품, 51%
 추상물: 24개 작품, 12%

이것들은 소재별로 따진 것이므로 하나의 작품이 복수의 소재를 가지는 경우 중복되게 소속될 수는 있고, 한 우언의 소재는 단순한 소재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비유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우언의 대체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는 자연물 특히 동물우언이 매우 발달한 유럽 우언과는 아주 다른 특성이며, 인물우언이 발달한 동아시아 우언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인물 > 자연물 > 추상물 > 인공물로 그 내용을 살펴면서 세부적 특징을 대비해 보자.

인물 소재의 우언작품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 형상은 역사적 인물을 가상하거나 가공한 경우이다. 총 44개 작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물 소재 우언 중에서 가장 많은(43%) 수치이다. 성현의 『부휴자담론·우언』이나 이서우의 「우언」편이 가장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왕과 재상, 왕과 신하, 통치자와 현자, 관리와 은자 혹은 배우 등의 상대적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 농부, 야인, 어부와 같이 기층민이지만 현자의 유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10개 작품에서 나온다. 특별히 역사적 인물이나 배경을 가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이외에 전통적 인륜 관계로서 부부 혹은 처첩, 부자, 주

노, 장유, 사제, 봉우 등이 11작품에 나타나는데, 특히 부부와 처첩(혹은 미녀와 추녀) 및 남녀 삼각관계가 가장 많고, 부자 관계는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역사 가상인물까지 포함한다면 인물 소재의 과반수 이상(53%)이 전통적 인륜관계의 범주를 문제 삼고 있는 우언인 셈이다.

또 작가 자신의 자아를 제3의 인물인양 가탁하는 작품도 8건에 달하여 우언이 기본적으로 자기 표백과 성찰의 도구로 운용되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또 땅꾼, 귀양다리, 사냥꾼, 과부, 소경, 도둑, 똥장사, 도굴꾼 등의 특별한 직능인이나 비상한 처지에 있는 인물형도 9건이 나타난다. 이외에 쾌망한 부자, 독직관리, 바보라든가 휘절한 정남, 시장통의 우중 등 반어적 인물형과, 어리숙한 행운이나 능글맞은 사람이나 사기꾼 등의 역설적 인물형도 나타난다.

자연물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시 동물이다. 동물이 60개, 식물이 10개, 무생물이 6개 작품에 나타난다. 동물 등장이 전체 작품 수의 30%이다.³⁾ 역사 가상인물 작품이 44개(22%)인 것에 비하면 동물 등장의 작품 수가 오히려 크게 웃돈다. 이를 유럽우언의 동물우언의 비중과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윤승준, 『한중 우언의 동물 상징』, 동방학지』 137집(연세대 국학연구원, 2007.3) 주석 ①에서 중국의 동물우언은 우언 전체의 20%로 추정했다. 또 주석 ④에서 한국의 동물우언으로 187편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더 본격적인 조사를 하면 이보다 많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많은 작품 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과의 대비가 더 요긴하다고 보아 본고에서는 샘플 작업으로 200여 개 작품에서 동물 소재 우언을 따진다.

<표 1> 유럽우언의 동물우언 백분율(%)

우언 작가	우언작품수	동물우언의 수	백분율
이 습	330	259	78.5
라 풍 텐	244	150	61.5
레 싱	105	73	75.3
끄레로프	205	105	51.7

서구에서 우언작가(fablist)로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 동물우언의 비중이 거의 50% 이상이고, 그것은 이습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 이에 비해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동물 소재 자체가 이들의 반 조금 넘는 정도이다.⁵⁾ 그러나 이는 작가에 따라 크게 사정이 달라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선정된 이규보의 작품(목록6~29)에서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은 8/24=33%이며, 성현(목록57~101)은 10/45=22%, 고상안(목록125~138)은 5/14=36%, 이서우(목록139~150)은 1/12=8%, 이광정(목록151~167)은 12/17=70%, 윤기(목록174~188)는 5/15=33%이다.

평균값을 상회하는 작가는 이규보, 고상안, 이광정, 윤기이다. 이규보, 고상안, 윤기는 문인관료적 삶에 구애되지 않고 사물을 정밀하게 관찰하며 자유로운 사고를 전개했던 작가로서 동물 소재를 우언에 과감하게 적용했던 결과로 여겨진다. 특히 이광정은 동물 소재를 아주 애용했던 우언 작가로 기억할 만한데, 그렇다고 서구 페이블리스트와 같은 우화만을 썼

4) 陳蒲清, 『世界寓言通論』(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90.) p.203 재인용.

5) 동물우언과 동물 소재의 우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화의 동물담에서 보듯이 동물이 의인화하여 나타나는 우화는 일단 단일 삽화의 설화이자 '동물우화'라 명명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에도 사람보다 동물이 더 주동적이므로 인물설화이기보다는 동물우화에 더 가깝다. 우언에서도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 동물은 단순히 소재에 그치지 않고 의인화된 주체로 기능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동물우언과 동물 소재의 우언을 대비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윤기의 작품에 설화를 활용한 우언이 많은 편이며, 이광정은 야담, 설화, 역사사실 등을 소재의 다양한 원천으로 끌어들이면서 교술적 의론과 서사를 뒤섞는 협서법(夾敘法)의 글쓰기를 구사했다고 평가된다. 이들 작가의 우언적 특성은 논고를 달리하여 상세히 논할 필요가 있다.

반면 성현의 경우는 평균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역사 가상인물의 우언이 아주 많은 데 비해서는 동물 소재도 적절히 끌어다 썼다고 평가된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동물 소재를 삽화로서 전체 우언에 끼어넣었기 때문이다. 또 이서우는 중요한 우언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동물 소재의 비중이 매우 빈약해졌다.

한편 본고에서 선정된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와 그 횟수를 따져 보면 다음과 같다.

- 개 -7회
- 쥐, 고양이 -각6회
- 호랑이, 말 -각5회,
- 여우, 소, 두더지, 거북/자라, 이/벼룩 -각4회
- 토끼, 벌, 모기/등에, 까치 -각3회
- 표범, 뱀, 부엉이, 꿩, 물고기, 게 -각2회
- 물수리, 닭, 두꺼비, 기러기, 까마귀, 송냥이, 누에, 구더기, 지렁이, 바다메기, 멧돼지, 양, 개미알, 다람쥐, 코끼리, 매, 거미, 파리, 벼룩, 매미 -각1회

이를 유럽 작가와 대비해 보자.

<표 2> 유럽 작가의 우언에서 각 동물이 활용된 백분율(%)

동물 작가	여우	사자	개	늑대	당나귀	양	사슴	쥐	말
이 슝	9.9	7.6	7.3	7.1	6.8	4.1	2.5	2.3	1.5
라 풍 텐	8.1	6.6	4.8	6.6	5.9	3.4	2.2	6.6	1.8
레 싱	11.5	5.3	2.7	5.3	5.3	3.5	5.3	4.4	5.3
끄레로프	10.2	8.7	4.4	8.3	5.8	5.3	0.5	4.4	3.9

<표2>는 위 네 작가의 작품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동물 9종을 열거한 것이다. 그것들의 백분율은 동물의 총 횟수를 100으로 따졌을 때 해당 동물이 나타나는 횟수의 비율이다. 예컨대 『이슝우언』에서 동물 73종이 모두 394번 나타나고 있는데 여우가 39번 나타나기 때문에 9.9%를 차지한다고 계산한 것이다. <표2>를 통해 볼 때 유럽의 우언 작가들이 사용하는 동물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여우가 첫째이고, 사자가 둘째이고, 늑대와 당나귀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⁶⁾

이에 비해 본고에서 살핀 한국산문 우언의 경우 동물 40종이 모두 94번 나타나는데, 개는 7.4%, 쥐/고양이는 6.4%, 호랑이/말은 5.3%, 여우/소/두더지/거북·자라/이·벼룩은 4.3% 차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한국의 경우 우언작가의 계보가 분명하지 않고 작품 수도 적어 일률적인 대비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동물의 차이를 말할 수는 있겠다.⁷⁾ 그 중 쥐, 호랑이, 소, 두더지, 거북이, 이가 두드러지게 활용된 것은 한국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개가 최고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간에게 가장 친밀한 동물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띤 것이지만, 유럽에

6) 陳蒲清, 앞의 책, 같은 곳 재인용.

7) 윤승준, 앞의 논문에서 한국과 중국의 동물우언에는 개, 쥐, 고양이, 호랑이, 말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두드러진다고 보고 해당 작품을 비교한 바 있다. 동물 종의 빈도 순위가 본고에서 파악한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서 3위를 차지한 것과 다르게 1위를 차지한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예컨대, 유럽에서 여우가 최우위를 점한 것은 이솝우언뿐만 아니라 중세의 『르나르 여우 이야기』의 전통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할 때, 우리는 개를 단순히 친숙한 동물이라는 의미 이외에 어떤 전통에서 그러한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식물의 경우 대나무와 소나무가 10개 작품 중 4개, 모란이 3개, 매화가 2개 작품에 등장하여 수위를 차지한다. 이는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인 죽·송·매, 부귀등왕(富貴等王)의 상징인 모란이 관습적으로 채택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윤리적 덕목을 추상하는 관념적인 경향과 부귀를 염원하는 현실적 취향이 대립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다.⁸⁾ 좀더 많은 화훼 우언을 살펴면서 이러한 경향을 심도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

무생물의 경우 작품 수가 적지만 돌이 2회 나타났고, 얼음, 물, 바람·나뭇잎, 소금이 1회씩 나타났다.

추상물의 경우 상제(上帝), 조물(造物), 천제(天帝), 마음[心] 등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정령과 도깨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고화된 경우가 많아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천군(天君), 수성(愁城),神明사(神明舍), 공중누각(空中樓閣) 등이 그것이다. 무시공(无是公), 오유선생(烏有先生), 자허자(子虛子) 등은 가상적 존재로서 우언적 전범으로 작용했다.

인공물의 경우 술과 붓이 단연 돋보인다. 문인관료의 사적/공적 삶의 단면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거울이나 가옥 등도 같은 맥락에서 더러 등장한다.

8) 최진옥·윤열수, 『모란꽃 그림전』(서울: 가회박물관 출판부, 2006.)에서는 모란꽃이 민화는 물론이고 민속적 표현에서 다양하게 등장하며 「모란도」(牧丹圖) 병풍이 화려하게 제작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란의 화훼 우언이 두드러진 것이 우연한 현상이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3. 우언 소재의 주제 구현 양상

3.1. 이(蠹)와 개(犬)의 대비

앞서의 고찰은 계량적인 측면에서 한국 우언산문의 대체적인 경향을 살펴 본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소재들이 우언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언은 대개 단일 삽화의 단순 구성으로 이루어지므로 위의 여러 소재가 곧 주체나 모티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본고에서는 몇 작품을 예로 들고 통시적으로 작품들의 유사한 경향을 견주어 봄으로써 우언에서의 소재가 주제를 구현하는 데 어떻게 기능하는지 예시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이규보의 <술견설(蝨犬說)>⁹⁾은 이와 개를 엉뚱하게 대비하는 내용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전체 구조는 손님과 주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의 사건이 전제되어 있다. 즉 객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개를 때려잡는 광경을 목도한 것이다. 아마도 구당을 해먹기 위한 행위였던 모양이다. 이는 주·객이 문답을 전개하기 위해 제시한 짤막한 일화이다. 우언에 속하는 설(說) 문체들은 대개 일화를 비유체[寓體]로, 문답 또는 논평을 본체[意體]로 구성한다.

그런데 주인은 문답을 통해 ‘개[犬]’에 대하여 ‘이[蝨]’를 대비시킨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이 잡아죽이는’ 행위를 느닷없이 끄집어 낸다. “이를 잡는 것은 불쌍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손님이 수궁하지 못하자 주인은 생명 지닌 만물을 동일하게 보기를 주문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개도, 이도 잡지 말자는 것인가? 그러나 작품은 더 이상의 언급이 없이 조금 성급하게 마무리를 시도하는 듯이 보인다. 손님은 다시는 개고기 등 속을 안 먹겠다고 했고, 주인은 다시는 이를 잡지 않겠다는 애초 주장이

9) 부록의 목록표 20번 작품이다.

팽팽하게 대립될 뿐이다. 문답 그 자체로는 이 이야기 또는 논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려는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문답 부분은 작품의 비유체 같기도 하고 본체 같기도 하다.

그러나 한 가지 효과는 예상할 수 있다. 이 잡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왔던 일반 사람의 상식이 깨지면서 인간과 자연물, 사람과 미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특이한 상황의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이 작품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1) 첫 번째 단계는 자연물의 특성을 유형화한다. 개에서 보듯이 생명 가진 존재가 생명을 잃는 광경을 차마 볼 수 없다는 점을 말했다.

(2) 두 번째 단계는 다른 대상과 견준다. 이를 잡아죽이는 일도 차마 할 수 없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우므로 사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복잡해진다.

(3) 세 번째 단계는 대비 범주를 더욱 넓혀 사태의 일반적 의미를 도출한다. 생명 가진 것들은 어떤 존재든 삶을 선호하고 죽음을 싫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 관점에서 개와 이를 동일하게 보고, 사람의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之心]을 이해하라고 했다.

이 세 단계를 요약하면 자연물의 모방, 대비, 가상의 원리로 확장해 나갔다고 요약된다. (1)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살벌 광경이지만 (2)에 의해서 희석되어 버렸다. 개는 우언의 비유체에 동원된 모방적 소재이고, 이는 우언의 본체로 연결하기 위한 대비적 소재이다. (2)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각의 허점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구석이 남아 있다. 살벌경이라는 관점에서 모방, 대비되고 있어 기발하기는 하지만 의아하다. (3)은 (2)가 ‘생명’의 속성을 말하기 위한 매개항이라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1)과 (2)의 대립을 종합한다. 생명의 일반적 원리를 가상하면 무수한 생물체들이 함께 거론되고, 인간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결코 ‘이’를 유별나게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¹⁰⁾ 그러나 그것들의 최종적 의미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3)의 해결은 너무도 추상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와 이에 대한 다른 발상이 가능하고 또 다른 우언 작품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조선후기의 허전(許傳:1797~1886)은 <잡설(雜說)>¹¹⁾에서 ‘개’와 ‘이’를 개별 소재로 삼아 연작 우언 작품을 만들었다. 첫째 작품에서는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본성을 지녀 도둑을 지킨다고 예찬했다. 그러나 주인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 보면서 항상 도둑을 지키지만, 때로 주인은 개가 공연히 짖는다고 때리기까지 한다. 이는 나라의 충신과 대비된다. 충신이란 남이 보지 못하는 앞날을 미리 내다 보고 정성을 다해 위망한 나라와 임금을 경계하는 존재라고 했다. 그러나 역대 군주는 충신을 으레 꾸짖거나 별주어 소인의 비웃음을 당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인에게 얻어맞는 개에 대비된다.

개의 또 다른 성질은 늘 먹이를 구하러 코를 땅에 끌며 돌아다닌다는 점이다. 먹이 때문에 이웃집으로 달아나기도 하고 주인과 손님을 구분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 지경이 되면 강아지를 보고도 으르렁 거리고 서로 물어뜯으며 머리에서 꼬리까지 두려움에 차 본성을 잃는다. 신하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충신이 쫓겨나는 세상에서 신하는 신하로서의 본성을 잃어가는 것이다. 쫓겨나지 않은 충신은 비참한 개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10) 이규보의 우언 작품 중에는 어떤 특수한 신체 부위나 사물을 소재로 삼아 명(銘) 잠(箴)을 지은 것이 여럿 있다. 이 중 <슬잠(蝨箴)>(작품 목록표 #8)에서는 ‘이’의 악착스러운 속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을 열거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여! 이여! 악착부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라고 언명하고 있다. 여기서도 작가는 ‘이’에 대한 두둔이나 미움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악착스러움”을 일반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1) 부록의 목록표 198번 작품이다.

역으로 충신이 쫓겨나지 않으려면 코를 끌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된다.

이에 비해 이[蠱]는 모조리 잡아 죽이고 씨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전제하여 극도의 증오감을 표시했다. 그것의 죄를 성토하자면 몇 가지로도 모자란다. 사람에게 의존해 살면서 오히려 사람을 해치기만 하기 때문이다. 또 이 때문에 이의 숙주인 사람들은 갖가지 망신스럽거나 우스운 상황을 빚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 근원을 따져보면 이[蠱]는 빨, 날개, 깃털, 비늘, 갑각은 고사하고 손톱이나 이빨조차 없다. 오직 나충(裸蟲)의 우두머리인 사람에게 붙어서 먹고 살아갈 방법밖에는 없다. 그것이 옷속에 사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거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충이 나충의 괴수에게 기생하여 사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나충의 괴수인 '사람'이 나충인 '이'에 물려 죽는 법은 없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임금의 나라에서 벼슬하고 갖은 호의호식을 하면서 백성을 잡아먹고 쪼먹는 사람은 이[蠱]도 하지 않을 짓을 하는 것이다. 그쫘 되면 '사람'은 '이'의 죄인이라고 했다.

위의 두 언설은 별개의 작품이지만 '개'와 '이'에 대한 논설이 절묘하게 대비되면서 연작의 의미를 띤다. '개'는 사람에게 우호적 동물이지만 타락하면 비루하게 변질된다. '이'는 사람에게 적대적 동물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귀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나 이나 동물에 대한 통념에 머무르지 말고 인간에 견주어 이면적 의미를 캐어보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참고로 위 연작의 세 번째 작품은 사람을 홀리는 여우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우에게 홀린 사람을 고치러 온 의원과 그 뒤의 도사들이 알고 보면 모두들 여우이어서 병이 낫는 듯하면서도 점점 깊어갔다. 어느날 우연히 치유자들끼리 서로 여우임을 간파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통에 주인이 그들

을 때려 잡고서야 홀린 사람이 가까스로 병이 낫게 되었다. 여우에게 홀리거나 방술에 미혹되거나 매한가지이다. 병자가 병자를 고친다거나 심지어 병 일으킨 자가 병 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니 병이 더욱 덧들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듯한 인간 세태를 그런 식으로 풍자하였다. 애초 아첨하는 데 끄들리지 말았다면 그 모든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연작 네 번째 작품은 제주도에 까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해명이다. 까치가 흑간 돛대 위에 앉아 제주도로 넘어오기도 하지만 까마귀들이 모여 들어 괴이하게 여기고 쫓아서 죽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까치는 지혜롭지 못하고 까마귀는 어질지 못하다고 했다.

위 셋째, 넷째 작품은 신이담과 사실담이어서 전혀 다른 차원 이야기 같지만, 진위와 시비가 얽히고 뒤바뀌는 세상사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더 나아가 가치 전도의 원인이 가짜와 거짓 쪽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와 참됨을 지키지 못하는 쪽의 탓도 크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 점에서 교훈적 의미가 결들여진 우연적 주제가 비로소 부각된다.

이 연속 작품들은 ‘잡설’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있지만, 개, 이, 여우, 까치의 이야기들을 잡스럽게 나열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규보의 <슬견설>에서 인간과 동물을 다같은 생명의 존재로 바라보라고 했던 것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효과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물들을 통해 깨우치는 인간세계의 진실이다. 이 작품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충위를 읽게 된다. 충견이 주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코를 끄는 똥개로 변질되는 만큼이나 추비스럽게 보신주의의 덫에 걸려들고 미는 충신, 이[蠱]보다 더 악착스럽게 왕조체제에 기생하며 탐학하는 관료, 아첨에 휘둘러 진위를 분간하지 못하고 병이 덧들려가기만 하는 권력자, 현신을 왕따시키는 패거리 정상배 등의 여러 충위가 그것이다. 우의의 귀결

점은 결국 인간이다.

3.2. ‘개’와 ‘이’의 우언 제재(題材)적 구실

개는 위 샘플 작품을 통해 볼 때, 가장 흔히 우언의 소재가 되는 자연물이다. 그만큼 인간의 가장 충직한 가축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는 그만큼 인간 세상을 들여다보게 하는 우언의 모방과 대비 과정의 매개물이다. 우언에서 그것은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우언의 주제를 구현하는 비유체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의를 담고 있는 주체로서 ‘제재’(題材)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개는 한국우언의 중요 제재로서 다양한 의미 충위를 제공한다. 심지어 “개는 과연 충직하기만 한가”라는 질문도 가능하다. “개가 집을 나가려면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속신어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속담과 통하는 데가 있다. 윤기의 <노구음한(老狗陰恨)>¹²⁾은 늙은 개가 주인의 고임을 잃고 어떻게 보복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절대 권력자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충신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또 성현의 <강상노인(江上老人)>¹³⁾은 쥐를 고양이, 고양이를 사나운 개가 퇴치하지만, 개는 방자해지면서 주인 부자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짙막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논설자 구실의 부휴자(浮休子)는 이것을 하나의 비유체로 받아들여 최초의 통일제국 진나라 사적에 대비시킨다. 이를 통해 현재적 의미의 어떠한 교훈이 도출되는가 차례대로 살펴보자.

1) 부자가 된 주인집에 쥐가 꼬여 곡식을 훔쳤다 ≒ 진나라에 여러 나

12) 부록의 목록표 180번의 작품이다. 늙은 개가 남몰래 한을 품었다는 뜻의 제목이다.

13) 부록의 목록표 100번 작품이다.

라 빈객이 모여들었다.

2) 쥐를 퇴치하기 위해 동쪽 마을에서 고양이를 들여왔다. ≍ 이사(李斯)가 축객론(逐客論)을 폈다.

3) 고양이가 집안 가축을 해꼬지하기 때문에 서쪽 마을에서 사나운 개를 들여왔다. ≍ 조고(趙高)가 이사를 죽였다.

4)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이고 점점 방자해져 주인 아들과 주인을 해꼬지했다. ≍ 조고가 태자 부소(扶蘇)와 이세(二世)를 시해했다.

5) 부자였던 주인집이 패가하였다. ≍ 강대국 진나라가 망했다.

그렇다면 개를 방자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애초 쥐를 그대로 놓아두어야 했었는가? 그러한 질문을 비유체에서 따지면 이상해 보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본체의 맥락에서는 던져볼 만한 질문이다. 강대국 진나라에 빈객이 꼬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굳이 쫓아낼 것이 아니라 적절히 활용하고 강대국의 막대한 이익을 뒤편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하나의 집단에서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부분의 역할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면 전체의 균형은 깨어지고 집단은 무너지고 만다.¹⁴⁾ 천하를 다스리는 마음이나 부자가 집안을 경영하는 기술이나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쥐와 고양이와 개는 생태 사슬처럼 이어져 있지만, 사나운 개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 부자는 패가하고 진나라는 망했다. 그러나 쥐를 적절하게 놓아두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진대 개를 제어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광정의 <물상외기이존(物相畏忌以存)>¹⁵⁾은 쥐 <고양이 <개

14) 양승민, 『우언과 글쓰기 전략』 우언의 서사문법과 담론 양상』(학고방, 2008.) p.191에서는 임금을 정점으로 하는 엄정한 정치적 질서의 확립이라는 작가의 군주론적 시각을 언급했다. 『부휴자담론』의 작가적 인식을 확인하라는 점에서는 옳은 지적이지만, 이 작품의 개별적 주제로서는 다소 범박하다.

<범 <승냥이 <코끼리가 천적관계를 이루고, 쥐가 다시 코끼리의 천적이 되어 먹이사슬의 순환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쥐가 코끼리의 코속으로 들어가면 그 거구의 동물이 꿈작없이 당한다는 것이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비유체로 삼아 역사를 재해석한다. 우선 전국칠웅(戰國七雄)의 합종론과 같은 힘의 균형에 대비시키고, 다시금 당파(黨派)의 중립적 운용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는 데까지 나아갔다.¹⁶⁾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개는 반려동물이 될 만큼 인간문명적 존재이지만 해로운 점도 적지 않다. 거꾸로 이(蠱)는 혐오스러운 기생동물이지만 긍정적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곽열(郭說, 1548~1630)의 <노인탐슬면(老人探蠱辨)>이나 유신환(兪莘煥, 1801~1859)의 <소유(小喻)>¹⁷⁾가 그 점에서 주목된다. 이[蠱]가 사람에게 더없이 친밀한 존재임을 말하면서 인간 스스로의 성숙이나 근본을 되돌아보는 매개로 삼았다. 이[蠱]가 사특한 존재라거나 소인배와 같다는 낯은 비유에서 벗어나서, 이가 사람에게 해꼬지하는 것보다 사람들끼리 천리를 해치는 것이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와 마찬가지로 ‘이’의 제재적 측면이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5) 부록의 목록표 156번 작품이다. 사물은 서로를 두려워하고 꺼림으로써 보존한다는 뜻의 제목이다.

16) 이 이야기는 해방정국에서 주변의 네 강국의 이해 대립과 남북 분단의 위기 상황에 빗대어 몽양 여운형이 재해석하였다. 이른바 <五獸不動>이다. 조선이 약소국이지만 강대국도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우의로 변용한 것이다. 최완택, <민들레 수요성서 강해 -잠언(119)> 『민들레교회이야기』 제644호(2008.10.19) 10쪽 참조. 증산교에서는 이를 ‘五仙圍棋’의 바둑형국으로 우연화하면서 <春山採芝歌>의 가사를 지어 제시하고 있다. <http://cafe.daum.net/Corea77> 참조. 이는 오늘날 한국이 북한과 더불어 민족공동체로서 ‘六者會談’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또 다른 우의로 변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17) 위 두 작품은 201개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작품의 전모와 해석에 관한 정보는 윤주필 주편, 앞의 책 제1권, pp.186~189; 제2권, pp.212~216 참조.

3.3. 우연의 비유소(比喩素)로서 ‘개’와 ‘이’의 의미 확장

개와 이는 자연물 중에서도 인간과 매우 친숙한 동물로서 한국 고전우연의 좋은 소재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단순한 소재에 머물지 않고 우연적 사유의 매개물로 작용하여 여러 의미 층위를 만들어 내었다. ‘개/이’의 유형적 특성을 끄집어 내어 과장하고, 그 특성을 다른 사물(혹은 인간)과 견준다. 그 다음에 인간적 의미를 대입하여 우의를 도출한다. 그 과정은 모방, 대비, 가상의 개념으로 요약된다. 또한 이 과정은 인간적 의미의 대입함에 따라 또 다른 우의로 확장되고 다층화된다. 이 때 ‘개/이’는 비유체의 핵심적 구실을 한다. 이를 우연 작품의 비유소(比喩素)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화의 핵심 단위인 모티프(motif)에 상응한다.

따라서 ‘개/이’라는 비유소를 중심으로 이제까지 살폈던 문제의식을 얼마든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제까지 살폈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왔다.

- (1) 개는 이로운 동물이고, 이는 해로운 동물이다.
- (2) 개와 이는 사람에게 아주 친숙한 동물로서 인간과 더불어 다같이 살기를 좋아하는 존재이다.
- (3) 개도 해로운 측면이 있는 동물이고, 이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동물이다.
- (4) 개와 이는 인간의 역사, 당대 사회에 전주어 볼 때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 (5) 개가 사람에게 이롭다는 것과 이가 사람에게 해롭다는 것은 틀린 판단인가?

(6) 무엇이 사람에게 이롭고 해롭다는 것은 사람만의 생각인가?

(7) 사람은 만물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하고, 사람끼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5)(6)(7)의 질문만 떼어놓고 보면 공연한 망상에 빠졌다 할지 모르지만, 이규보의 <슬견설>에서 출발하여 후대 작가들이 지은 동일 비유소의 우언을 두루 살펴다 보면 정당한 의문 제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규보의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잘 알려진 <문조물(問造物)>¹⁸⁾은 부제에서부터 “나는 파리 모기 종류를 싫어하여 애초 이러한 제목을 내었다”고 했다. 작품 내용에서는 “큰 놈으로 곰·범·늑대·승냥이 같은 것, 작은 놈으로 모기·등에·벼룩·이 같은 것들은 사람에게 해꼬지 함이 아주 심하다.”라고 하여 그 싫어하는 종류가 ‘이[蝨]’말고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가 비유소의 기능을 부여받을 뿐이며 그 혐오감은 매우 근원적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조물주가 이로운 것들을 태어나게 해서 사람이 먹고 입고 살 길을 마련해 주면서도, 왜 이러한 해로운 것들을 함께 낸 것인가 묻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한층 유별나게 표현해서 “하늘은 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함이 한결같지 않느냐?”고 힐난하였다.¹⁹⁾

이에 대한 ‘나’와 ‘조물’의 문답은 자못 진지하면서도 때로 비약적이다. 우선 논제에 대한 답변으로 ‘이로움[利]’과 ‘해로움[毒]’은 어떤 특정한 존재의 좋아함이나 싫어함, 그리고 어떤 주체의 계획된 의도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그러한 세계, 즉 자연계에 스스로 생겨났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대한 대처는 이로움을 유난히 기뻐함 없이 잘 받아들이고, 독물을 유난히

18) 부록의 목록표 29번 작품이다.

19) 이규보의 <문조물>에 대한 감상과 연구는 윤주필 주편, 앞의 책 제1권, pp.93~96에서 상세하게 시도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를 참고하여 필요한 문제를 덧붙인다.

꺼림 없이 맞닥뜨리는 방법이 있을 뿐이라 했다. 말하자면 이로우과 해로움의 자연속성에 대해 수용과 대항의 관계성을 어떠한 의도도 개입시키지 말고 인정하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그렇게 답하는 존재인 조물과, 조물이 말하는 ‘도’의 근거인 하늘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작가는 우연을 전개시키기 위한 가상적 존재라 할 그것에까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삼천(三天)의 옥경(玉境)에 이를 수 있느냐고 묻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것은 조금 의외처럼 보이지만, 자연에 순응하는 ‘도’를 인정하는 것이 기존 지식 체계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견주어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질문이었다.

옥경(玉京)은 도교의 최고위 신격 원시천존(元始天尊)이 거하는 공간이다. 이는 삼청(三清)의 으뜸 시공간이다. 태초에 우주를 만든 반고(盤古)의 신화적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원시천존이 우주를 거듭 새롭게 만드는 곳이다. 무위의 존재인 하늘이 반고라는 신화적 존재로 상징된다면, 유위의 시작인 조물은 원시천존이라는 종교적 신격에 배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연에서 ‘조물’은 스스로 자신의 유위적 행위를 철저히 부정한다. 그 대신 자연물에 제대로 순응하지 못하는 ‘나’라는 인간은 그 원시천존의 새로운 우주 반복의 시공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해 준다. 조물의 입장에서 시작은 늘 새로운 것이지만 늘 반복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주체는 오히려 조물이 아니라 문제적 존재인 ‘나’이다. 다만 ‘나’가 그것을 인식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러한 해석에 도달한 것은 결국 이규보 철학의 문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 해석보다는 그 과정을 강조해 두는 편이 더 요긴할 듯하다. 우연의 비유소는 비근한 자연물로부터 출발하지만, 모방과 대비와 가상과 층위의 범주를 몇 단계 넘어 추상화되면서 중국에는 자연스럽게 사유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개념적 어휘를 근간으로 삼아 논설을 펴는 교술적 글쓰기에 비해 비유와 상징성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작가나 독자나 모두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비유소는 가장 친숙한 소재로부터 점점 추상화하여 작가와 독자의 생각을 소통하게 하는 사유도구의 핵심으로 기능한다고 하겠다.

4. 마무리

우화는 설화학에서 종종 독립된 설화군(說話群)으로 대별된다. 흔히 신이담(神異談), 소담(笑談) 형식담(形式談) 등과 동일한 층위의 한 영역이다. 주로 동물이 의인화되어 벌이는 행동이 매개가 되어 인간적 교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동물담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동물을 대비의 매개로 삼는다는 점에서 비유담이라고 할 수 있다.

우언은 우화의 비유담 성격을 포함하지만 동물담에 국한되지 않으며, 교훈 도출의 과정으로서 설득의 교술적 담론이 추가되기 일쑤이다. 그 점에서 우언은 교술적 창작 우화이며, 우화는 서사적 민간 우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중시한다면, 우화라는 새로운 용어와 개념은 ‘우언’이라는 동아시아 고전 용어에 포괄시키는 편이 더 합당할 것이다.²⁰⁾ 물론 구비 위주의 설화학 개념과 용어는 그것대로 인정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문헌 위주의 우언 전통이 장구하고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국 우언산문에서 작품의 소재이자 우의의 핵심 매개물은 자연물, 인

20)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우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중국의 동식물담을 모은 편찬서로서 江介石·林蘭 編, 『動物寓言與植物傳說』(台北: 東方文化書局, 1969)가 國立北京大學과 中國民俗學會의 『民俗叢書』로서 발간된 바 있다.

물, 인공물, 추상물로 대별된다. 이들의 비중을 알아 보기 위하여 문집과 선집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고전문헌의 우언목록 샘플 201작품을 선정하고 백분율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총 작품 수에서 인물 51%, 자연물 38%, 추상물 12%, 인공물 11%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인물 중에서는 역사적 가상인물이, 자연물 중에서는 동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작품 수에 대한 역사 가상인물의 비중은 22%인데 비하여 동물의 비중은 30%에 달했다. 동물 소재의 작품이 개별 소재로서 가장 많으므로 한국 우언산문에서 동물 우언의 비중이 의외로 매우 높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 동물 종류로는 개 >쥐/고양이 >호랑이/말 >여우/소/두더지/거북·자라/이·벼룩 등의 순으로 빈도수를 보였다.

우언의 인물 혹은 동물 등의 소재는 비유체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재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題材)이다. 우언을 하나의 비유담이라 볼 때 그것들은 비유의 핵심 단위로서 비유소(比喩素)라 부를 만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걸출한 우언작가였던 이규보의 <슬견설>을 위시하여 후대 작가의 몇몇 작품에서 ‘개’와 ‘이’라는 소재가 어떻게 여러 우언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가에 대해 살폈다. 그 결과 각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 전환의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1)개는 이로운 동물이고, 이는 해로운 동물이다. (2)개와 이는 사람에게 아주 친숙한 동물로서 인간과 더불어 다같이 살기를 좋아하는 존재이다. (3)개도 해로운 측면이 있는 동물이고, 이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동물이다. (4)개와 이는 인간의 역사, 당대 사회에 견주어 볼 때 더 큰 의미가 있다.

위 우언을 고찰한 결과 동물의 비유소는 사람이 만물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하고, 사람끼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특정 동물이 사람에게 이롭다고 좋아하고 해롭다고 꺼리는 것은 사람만의 고정된 편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규보의 사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고찰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을 괴롭히는 해충들의 존재를 조물주에게 따지는 내용의 <문조물>은 하찮은 일의 깊숙한 의미를 따진 우언으로서 주목된다. 만물은 애초 만들어진 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새롭게 창조되며, 그러한 창조의 반복 과정에 오직 '나'라는 존재가 당당히 참여한다는 인식을 작품 속에 우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영, 망양록 연구, 집문당, 2003. 262p.
양승민, 우언의 서사문법과 담론양상, 학고방, 2008. 309p.
윤승준, 한중 우언의 동물 상징, 동방학지 137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7.3. pp.302~306
윤승준, 한중 우언의 비교 연구 -동물우언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39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6.8. pp.267~283
윤주필 주편, 한국 우언산문 선집 부록 CD -한국 우언산문 총목록, 박이정, 2008.
윤주필 주편, 한국 우언산문 선집 제1·2권, 박이정, 2008. 394p.;291p.
정인섭/ 최인학· 강재철 역편, 한국의 설화, 단국대출판부, 2007. pp.371~411
조희웅, (증보개정판) 한국 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372p.
최인학· 임용희 편저, 옛날이야기꾸러미1-한국민담유형집성: 동식물옛날이야기-, 집문당, 2003. 182p.
최진옥· 윤열수 기획, 모란꽃 그림전 도록, 서울: 가회박물관 출판부, 2006. 152p.
陳蒲清, 世界寓言通論,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90. 345p.
江介石·林蘭 編, 『動物寓言與植物傳説』, 台北: 東方文化書局, 1969, 『國立北京大學·中國民俗學會 民俗叢書』12, 海外中文圖書 影印本

ABSTRACT

On the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toward Imitation of Natural Objects showed in the Korean Allegorical Proses

Yoon, Ju-Pil

The materials of Korean allegorical proses could be classified into persona, natural object, artifact, and abstract object. They account for 51%, 38%, 12%, and 11% in the 201 pieces of sample works respectively. Closely speaking, while imaginary personae of history on the material of persona, animals are given most weight on the natural object. However, compared with imaginary persona for 22%, the weight of animal account for 30% in the whole works. We recognize newly that animal allegory in Korea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unexpectedly. Also, as the kinds of animals, the frequency is higher according to the order of dog > mouse/cat > tiger/horse > fox/cow/mole/tortoise · turtle/louse · flea etc.

The material of allegory roles as the thematic one in the point which it consist of the core of analogy. Also, it deserve to be refered as analogical element while we consider allegory as figurative discourse. In this thesis, through Lee Kyu-Bo's <a View on Dog & Louse> and so, I contemplate how the materials of 'dog' and 'louse' embody the theme of allegorical works. As the result, I found the process of logical conversion as follow. (1) Dog is a helpful animal, louse is a harmful animal. (2) As dog and louse are very familiar with mankind, they are beings to like living against the mankind together. (3) Dog also has the harmful side, louse also has the helpful side. (4) Dog and louse have much more meaning when we compare them with history of mankind or contemporary society.

As the result of contemplation on the allegorical works, the analogical elements of animals provide us with the moment to reflect how the mankind should match well their living with the whole creation, moreover

how the mankind themselves live well one another. It may be a prejudiced view of mankind that he like a particular animal because of being helpful or hate because of being harmful. In this view, we can comprehend the idea of Lee Gyu-Bo newly. Especially <a Dialogue with the Creator> is remarkable, in which the writer doubts with the creationism of harmful insects to harass mankind always. It is allegorized within it that the whole creation is not fixed as being created at the very first time, is created as new being always, and only by the being of 'I' could be participated fairly with such repeated process of creation.

Key Words person allegory, animal allegory, imitation of natural objects, Lee Gyu-Bo, dog and louse as a thematic matter or analogical element, allegory as a instrument of thinking

논문투고일 : 2008. 9. 30
심사완료일 : 2008. 10. 28
게재확정일 : 2008. 11. 14

番號	題目	著者及編者	著作時期	字數	收錄文獻	資料情報	特記事項
1.	龜兔之說	①著者: 未詳 ②編者: 金富軾(1075~1151)	7世紀/ 12世紀	218字	『三國史記』 卷41 列傳·金庾信		從『五券書(phantsatantra)』傳來
2.	花王戒	薛聰	7世紀	342字	『三國史記』 卷46 列傳·薛聰		①『東文選』에 “諷王書”라는 題目으로 실려 있음. ②李種徽(1731~1797)의 『修山集』 所載. 『東史·列傳·薛聰崔致遠列傳』에 “花王說”이라는 이름으로 收錄돼 있음.
3.	上吏部李郎中薦徐諧書	林椿(?~?)		829字	『西河集』 卷4 書簡	『文叢』 1-241	書簡中插入寓言
4.	麴醇傳	林椿(?~?)		895字	『西河集』 卷5 序記傳	『文叢』 1-259	『東文選』 卷100 傳
5.	孔方傳	林椿(?~?)		1012字	『西河集』 卷5 序記傳	『文叢』 1-260	『東文選』 卷100 傳 曹圭喆, 曹鳳默 <孔方傳> 金萬鎭, <錢神傳> 參照.
6.	年譜 戊戌	李奎報(1168~1241)		105字	『東國東李相國集』 年報	『文叢』 1-284d	插入詩
7.	晉康侯別第迎聖駕次教坊呈瑞物致語(并序各頌一首)	李奎報(1168~1241)		566字	『東國李相國集』 卷19 頌	『文叢』 1-488	
8.	蝨箴	李奎報(1168~1241)		72字	『東國李相國集』 卷19 雜著 箴	『文叢』 1-496	『東文選』 卷49 箴
9.	命斑葵文	李奎報(1168~1241)		447字	『東國李相國集』 卷20 雜著 韻語	『文叢』 1-497	『東文選』 卷56 文

番號	題目	著者及編者	著作時期	字數	收錄文獻	資料情報	特記事項
10.	呪鼠文	李奎報 (1168~1241)		299字	『東國李相國集』 卷20 雜著 韻語	『文叢』 1-497	『東文選』 卷56 文
11.	驅詩魔文	李奎報 (1168~1241)		932字	『東國李相國集』 卷20 雜著 韻語	『文叢』 1-498	『東文選』 卷56 文
12.	土靈問	李奎報 (1168~1241)		352字	『東國李相國集』 卷20 雜著 韻語	『文叢』 1-501	
13.	異相者對	李奎報 (1168~1241)		658字	『東國李相國集』 卷20 雜著 韻語	『文叢』 1-501	『東文選』 卷105 對
14.	白雲居士 語錄	李奎報 (1168~1241)		527字	『東國李相國集』 卷20 雜著 語錄	『文叢』 1-502	『東文選』 卷107 雜著
15.	麴先生傳	李奎報 (1168~1241)		830字	『東國李相國集』 卷20 雜著 傳	『文叢』 1-503	『東文選』 卷100 傳
16.	清江使者 玄夫傳	李奎報 (1168~1241)		693字	『東國李相國集』 卷20 雜著 傳	『文叢』 1-504	『東文選』 卷100 傳
17.	白雲居士 傳	李奎報 (1168~1241)		130字	『東國李相國集』 卷20 雜著 傳	『文叢』 1-505	『東文選』 卷100 傳
18.	鏡說	李奎報 (1168~1241)		168字	『東國李相國集』 卷21 說	『文叢』 1-507	『東文選』 卷96 說
19.	舟賂說	李奎報 (1168~1241)		139字	『東國李相國集』 卷21 說	『文叢』 1-507	『東文選』 卷96 說
20.	蝨犬說	李奎報 (1168~1241)		250字	『東國李相國集』 卷21 說	『文叢』 1-507	『東文選』 卷96 說
21.	壞土室說	李奎報 (1168~1241)		223字	『東國李相國集』 卷21 說	『文叢』 1-508	『東文選』 卷96 說
22.	理屋說	李奎報 (1168~1241)		185字	『東國李相國集』 卷21 說	『文叢』 1-508	『東文選』 卷96 說
23.	李史館允 甫詩跋尾	李奎報 (1168~1241)		130字	『東國李相國集』 卷21 跋	『文叢』 1-514	『東文選』 卷102 跋 寓言文學史 補充資料
24.	代仙人寄 予書	李奎報 (1168~1241)		588字	『東國李相國集』 卷26 書	『文叢』 1-560	『東文選』 卷59 書
25.	上趙太衛 書	李奎報 (1168~1241)		32字	『東國李相國集』 卷26 書	『文叢』 1-564	插入寓言 564c3 昔人有問~吾特 許之而不與也
26.	投趙郎中 沖書	李奎報 (1168~1241)		245字	『東國李相國集』 卷26 書	『文叢』 1-566	插入寓言 567b6 某聞~c9皆萃於 其家矣; 『東文 選』 卷60 書

番號	題目	著者及編者	著作時期	字數	收錄文獻	資料情報	特記事項
27.	上 晉 康 公 書	李奎報 (1168~1241)		986字 (寓言 56字)	『東國李相國集』 卷27 書	『文叢』 1-574	『東文選』 卷60 書 插入寓言 575b10昔有二人~575c3後已
28.	答石問	李奎報 (1168~1241)		328字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11 問答	『文叢』 2-246	
29.	問造物(子 厭蠅蚊之類 始發是題)	李奎報 (1168~1241)		365字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11 問答	『文叢』 2-246	『東文選』 卷107 雜著
30.	竹尊者傳	釋 慧謙 (1178~1234)		666字	『韓國佛教全書』 6 無衣子詩集	『佛教全書』 6-63	
31.	水道者傳	釋 慧謙 (1178~1234)		686字	『韓國佛教全書』 6 無衣子詩集	『佛教全書』 6-64	
32.	石問	李 穀 (1298~1351)		660字	『稼亭集』 文集 卷1 雜著	『文叢』 3-106	『東文選』 卷107 雜著 1662年刊
33.	竹夫人傳	李 穀 (1298~1351)		656字	『稼亭集』 文集 卷1 雜著	『文叢』 3-107	『東文選』 卷100 傳 『稗官雜記』 第1
34.	借馬說	李 穀 (1298~1351)		218字	『稼亭集』 文集 卷7 說	『文叢』 3-141	『東文選』 卷96 說
35.	市肆說	李 穀 (1298~1351)		201字	『稼亭集』 文集 卷7 說	『文叢』 3-145	『東文選』 卷96 說
36.	答田父	鄭道傳 (1342~1398)		773字	『三峯集』 卷4 說	『文叢』 5-353	『東文選』 卷107 雜著 著者錦南雜題之一
37.	錦南野人	鄭道傳 (1342~1398)		558字	『三峯集』 卷4 說	『文叢』 5-354	『東文選』 卷107 雜著 著者錦南雜題之一
38.	家難	鄭道傳 (1342~1398)		230字	『三峯集』 卷4 說	『文叢』 5-355	『東文選』 卷107 雜著 著者錦南雜題之一, 參考鄭道傳 「題眞贊後」及權 近 慶淑宅主眞 贊 (『文叢』 5-357d)

番號	題目	著者及編者	著作時期	字數	收錄文獻	資料情報	特記事項
39.	謝 魁 魅 文 (并序)	鄭道傳 (1342~1398)		553字	『三峯集』卷4 祭 文	『文叢』 5-363	『東文選』 卷56 文 送窮文之類
40.	心氣理篇	鄭道傳 (1342~1398)		354字	『三峯集』 卷10 心氣理篇	『文叢』 5-467b ~469a	原文集有權近註 釋及序載焉, 形 影神之類
41.	[心問天答]	鄭道傳 (1342~1398)		349字	『三峯集』 卷10 心問	『文叢』 5-470b ~474a	原文集有權近註 釋及序
42.	古澗記	權 近 (1352~1409)		800字	『陽村集』 卷10 記	『文叢』 7-122	『東文選』 卷78 記 맑은 시냇물에 선 승의 인격을 비유
43.	舟翁說	權 近 (1352~1409)	14世紀	344字	『陽村集』 卷21 說	『文叢』 7-208	『東文選』 卷98 說 客與舟翁問答 以人世比巨浸 一身比片舟
44.	騎牛說	權 近 (1352~1409)	14世紀	362字	『陽村集』 卷21 說	『文叢』 7-209	『東文選』 卷98 說
45.	三友說	權 近 (1352~1409)	14世紀	661字	『陽村集』 卷21 說	『文叢』 7-213	『東文選』 卷98 說
46.	田父唁	權 近 (1352~1409)	14世紀	798字	『陽村集』 卷33 雜著	『文叢』 7-291	陽村子見逐 田 父慰來, 猶鄭道 傳答田父
47.	一十體 篋 篙偈·松大 夫詩	姜希孟 (1424~1483)	15世紀	484字	『私淑齋集』 卷5 雜著	『文叢』 12-68	假想的空間 設 定
48.	假山讚(并 序)	姜希孟 (1424~1483)	15世紀	513字	『私淑齋集』 卷5 雜著	『文叢』 12-70	『續東文選』 卷 11 贊 假想的空間 設 定
49.	忌蚤說	姜希孟 (1424~1483)	15世紀	454字	『私淑齋集』 卷9 說	『文叢』 12-126	『續東文選』 卷 17 說 以忌蚤說養生
50.	升木說	姜希孟 (1424~1483)	15世紀	614字	『私淑齋集』 卷9 說	『文叢』 12-127	『東文選』 卷17 說 童子甲·乙升木 之伎判異. 卑高 無定名

番號	題目	著者及編者	著作時期	字數	收錄文獻	資料情報	特記事項
51.	盜子說	姜希孟 (1424~1483)	15世紀	623字	『私淑齋集』卷9 說	『文叢』 12-130	『東文選』卷17 說
52.	啗蛇說	姜希孟 (1424~1483)	15世紀	544字	『私淑齋集』卷9 說	『文叢』 12-130	『東文選』卷17 說
53.	登山說	姜希孟 (1424~1483)	15世紀	600字	『私淑齋集』卷9 說	『文叢』 12-131	『東文選』卷17 說
54.	三雉說	姜希孟 (1424~1483)	15世紀	844字	『私淑齋集』卷9 說	『文叢』 12-132	『東文選』卷17 說
55.	溺桶說	姜希孟 (1424~1483)	15世紀	617字	『私淑齋集』卷9 說	『文叢』 12-133	『東文選』卷17 說
56.	農者對	姜希孟 (1424~1483)	15世紀	651字	『私淑齋集』卷 11 衿陽雜錄	『文叢』 12-150	衿陽雜錄第三篇
57.	惰農說	成 倪 (1439~1504)	15世紀	485字	虛白堂文集 卷12 說	『文叢』 14-505	
58.	黑牛說	成 倪 (1439~1504)	15世紀	433字	虛白堂文集 卷12 說	『文叢』 14-507	
59.	鵲巢說	成 倪 (1439~1504)	15世紀	283字	虛白堂文集 卷12 說	『文叢』 14-508	
60.	浮休子傳	成 倪 (1439~1504)	15世紀	568字	『虛白堂集』文 集 卷13 傳	『文叢』 14-526	『續東文選』卷 17 傳 自托傳
61.	嘲慵	成 倪 (1439~1504)	15世紀	632字	『虛白堂集』文 集 卷13 雜著	『文叢』 14-527	『續東文選』卷 18 雜書 成子讓慵鬼而請 改同處，猶逐貧 賦送窮文之類
62.	瘞白猫文	成 倪 (1439~1504)	15世紀	224字	『虛白堂集』文 集 卷14 祭文	『文叢』 14-534	家猫爲狗所噬， 猶臨江之窠，且 鼠相慶
63.	三人供馬	成 倪 (1439~1504)	15世紀	156字	『慵齋叢話』		沈翼雲，『江天閣 銷夏錄』，雜著4 則 <三人供馬>
64.	漫浪叟惡 訓狐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 字	浮休子談論 雅言	李鐘默 譯， 『浮休子談論』 ，弘益出版社， 2002. 李來宗 譯， 『浮休子談論』 ，소명출판， 2004.	『浮休子談論』 無題 收錄 四十 話 中 其三十七

番號	題目	著者及編者	著作時期	字數	收錄文獻	資料情報	特記事項
65.	樗散生爲歎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585字	浮休子談論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一
66.	華陰先生補王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394字	浮休子談論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二
67.	空同子奏琴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512字	浮休子談論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三
68.	士人緩與浮休子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410字	浮休子談論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四
69.	朱大夫學琴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362字	浮休子談論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五
70.	齊宣王與淳于髡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56字	浮休子談論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六
71.	東臯子患貧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548字	浮休子談論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七
72.	華陽子耽讀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86字	浮休子談論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八
73.	司馬期與軍卒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08字	浮休子談論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九
74.	浮休子患痞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338字	浮休子談論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十
75.	楚莊王與孫叔敖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338字	浮休子談論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十一
76.	衛靈公愛鮀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86字	浮休子談論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十二
77.	衛君好察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32字	浮休子談論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十三

番號	題目	著者及編者	著作時期	字數	收錄文獻	資料情報	特記事項
78.	中山王患瘍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182字	浮休子談論 ㄱ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ㄱ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十四
79.	齊王患盜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31字	浮休子談論 ㄱ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ㄱ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十五
80.	武士爲卿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156字	浮休子談論 ㄱ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ㄱ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十六
81.	莎丘丈人守正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78字	浮休子談論 ㄱ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ㄱ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十七
82.	猗氏與卜氏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60字	浮休子談論 ㄱ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ㄱ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十八
83.	燕昭王與劇辛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65字	浮休子談論 ㄱ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ㄱ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十九
84.	晉平公與師曠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58字	浮休子談論 ㄱ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ㄱ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二十
85.	東臯子與鹿皮翁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47字	浮休子談論 ㄱ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ㄱ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二一
86.	葛公聚斂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08字	浮休子談論 ㄱ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ㄱ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二二
87.	子封與子柳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60字	浮休子談論 ㄱ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ㄱ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二三
88.	周舍善諫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08字	浮休子談論 ㄱ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ㄱ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二四
89.	優人與大夫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365字	浮休子談論 ㄱ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ㄱ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二五
90.	鄭大夫種栗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34字	浮休子談論 ㄱ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 ㄱ 無題 收錄 三七 話 中 其二六

番號	題目	著者及編者	著作時期	字數	收錄文獻	資料情報	特記事項
91.	酒色之患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64字	浮休子談論 1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無題 收錄. 三七話中其二七 『畿湖興學會月報』第4號(1908. 11.)에 <酒色之患>이라는 題目으로 실려 있음(投稿者: 晚悟子)
92.	柳氏之妻妾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35字	浮休子談論 1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無題 收錄. 三七話中其二八
93.	上官大夫與堂谿氏女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88字	浮休子談論 1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無題 收錄. 三七話中其二九
94.	田生與躄者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364字	浮休子談論 1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無題 收錄. 三七話中其三十
95.	魏文侯與田子方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442字	浮休子談論 1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無題 收錄. 三七話中其三一
96.	武靈王與趙成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418字	浮休子談論 1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無題 收錄. 三七話中其三二
97.	匡平子失火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05字	浮休子談論 1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無題 收錄. 三七話中其三三
98.	玄成子觀水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258字	浮休子談論 1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無題 收錄. 三七話中其三四
99.	東郭先生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180字	浮休子談論 1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無題 收錄. 三七話中其三五
100.	江上老人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382字	浮休子談論 1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無題 收錄. 三七話中其三六
101.	美邑與惡邑	成 倪 (1439~1504)	15世紀	約315字	浮休子談論 1 寓言	상동	『浮休子談論』寓言篇 無題 收錄. 三七話中其三七

番號	題目	著者及編者	著作時期	字數	收錄文獻	資料情報	特記事項
102.	八餘居士自序	金正國 (1485~1541)	1519 (己卯)	364字	『思齋集』卷3 序	『文叢』 23-44	罷職時 處世觀 假託. 樂有餘人與憂不足人 對比
103.	[三兔一鶚]	金正國 (1485~1541)	16世紀	88字	『思齋集』卷4 摭言	『文叢』 23-66	己卯士禍 關聯 李沆, 趙光祖
104.	[鴝鵒鳴固執敗事]	金正國 (1485~1541)	16世紀	172字	『思齋集』卷4 摭言	『文叢』 23-71	
105.	[義鷄之事]	金正國 (1485~1541)	16世紀	221字	『思齋集』卷4 摭言	『文叢』 23-82	金安國以義鷄護養不殺
106.	[蝦蟆與冤狐得一箇餅]	金正國 (1485~1541)	16世紀	192字	『思齋集』卷4 摭言	『文叢』 23-84	두꺼비·토끼·여우의 爭辯寓言
107.	神明舍銘	曹植 (1501~1572)		227字	『南冥集』卷1 銘	『文叢』 31-480	
108.	杏壇記	曹植 (1501~1572)	16世紀	690字	『南冥集』卷2 記	『文叢』 31-494	擬顏回作以記孔子杏壇之遊
109.	陋巷記	曹植 (1501~1572)	16世紀	440字	『南冥集』卷2 記	『文叢』 31-495	擬曾參作以記顏回陋巷之況
110.	逐詩魔	崔演 (1503~1546)	16世紀	821字	『良齋集』卷11 雜著	『文叢』 32-191	告詩魔速去急如律令. 放逐鬼型 非如送窮文
111.	封管城子詰	崔演 (1503~1546)	16世紀	324字	『良齋集』卷11 雜著	『文叢』 32-192	假皇帝之詰 以封毛谷逸士于管城
112.	雁奴說	崔演 (1503~1546)	16世紀	279字	『良齋集』卷11 雜著	『文叢』 32-192	人亦有受給於奸狡而不信忠賢者
113.	猫捕鼠說	崔演 (1503~1546)	16世紀	500字	『良齋集』卷11 雜著	『文叢』 32-192	天地生物各有職守 如猫捕鼠 人亦有甚於鼠者 當思所以去之之道 『朱子大全』 雜著 中 清草堂 猫捕鼠說 影響
114.	麴秀才傳	崔演 (1503~1546)	16世紀	1341字	『良齋集』卷11 雜著	『文叢』 32-193	酒之假傳. 天性樂易 善與人交 且能交久 而敬不衰

番號	題目	著者及編者	著作時期	字數	收錄文獻	資料情報	特記事項
115.	天君遣志 帥攻愁城	洪聖民 (1536~1594)		774字	『拙翁集』卷6 詔	『文叢』 46-506	林悌<愁城誌>; 南翎<青從事麴 生…攻愁城>參 照
116.	蜀犬吠日 說	洪聖民 (1536~1594)		843字	『拙翁集』卷6 說	『文叢』 46-508	何獨犬爲然 人 爲甚 人之方寸 自有一天. 具鳳 齡<蜀犬吠日 說>參照
117.	馬換牛說	洪聖民 (1536~1594)	1591(辛 卯)	503字	『拙翁集』卷6 說	『文叢』 46-512	富寧府유배시 작 품 牛馬天地間公物 不必主於我 不 必主於人
118.	質鹽販粟 說	洪聖民 (1536~1594)		754字	『拙翁集』卷6 說	『文叢』 46-512	富寧府유배시 작 품 소금장수를 하면 서 농사꾼이 되기 를 희망
119.	賣魚翁問 答敍	洪聖民 (1536~1594)		874字	『拙翁集』卷7 敍	『文叢』 46-536	安知平地波瀾不 如舟之風浪. <賣 魚翁行>(445面) 參照
120.	愁城誌	林悌 (1549~1587)		4574字	『林白湖集』卷4 誌	『文叢』 58-318	
121.	送懶文	林悌 (1549~1587)		約900字	『白湖續集』卷2	『(譯註) 白湖全書』 下, 創作과 批評社, 1997.	送窮文類 寓言
122.	柳與梅爭 春	林悌 (1549~1587)		2534字	『白湖續集』卷3	『(譯註) 白湖全書』 下, 創作과 批評社, 1997. 林燮澤 所藏	
123.	元生夢遊 錄	林悌 (1549~1587)	16世紀	約1700 字	『白湖先生文集』 三刊, 下 卷4 附 錄	韓國學中央 研究院 所藏	木活字
124.	花史	林悌 (1549~1587)		約8000 字	『白湖先生文集』	國立中央圖 書館 所藏	1958年 刊行 石 版本

番號	題目	著者及編者	著作時期	字數	收錄文獻	資料情報	特記事項
125.	泰村自說	高尚顏 (1553~1623)		216字	『泰村集』卷3 說	『文叢』 59-239	
126.	[一舉三得]	高尚顏 (1553~1623)		130字	『泰村集』卷4 效 嘸雜記上 叢話	『文叢』 59-254b	
127.	[小人腹君子心]	高尚顏 (1553~1623)		179字	『泰村集』卷4 效 嘸雜記上 叢話	『文叢』 59-255c	
128.	[善者得少不善者反優]	高尚顏 (1553~1623)		119字	『泰村集』卷4 效 嘸雜記上 叢話	『文叢』 59-256c	
129.	[女巫傳尹元衡魂說]	高尚顏 (1553~1623)		522字	『泰村集』卷4 效 嘸雜記上 叢話	『文叢』 59-260c	
130.	[駢牛優劣諸宰優劣]	高尚顏 (1553~1623)		113字	『泰村集』卷4 效 嘸雜記上 叢話	『文叢』 59-261c	
131.	[請酒肉答書]	高尚顏 (1553~1623)		100字	『泰村集』卷4 效 嘸雜記上 叢話	『文叢』 59-265b	
132.	[鼯鼠婚姻]	高尚顏 (1553~1623)		223字	『泰村集』卷4 效 嘸雜記上 叢話	『文叢』 59-265b	
133.	[兩伯之判竭真情法]	高尚顏 (1553~1623)		162字	『泰村集』卷4 效 嘸雜記上 叢話	『文叢』 59-265d	
134.	[買奴得翁柳淵冤獄]	高尚顏 (1553~1623)		801字	『泰村集』卷4 效 嘸雜記上 叢話	『文叢』 59-268d	
135.	[老鼠之老成]	高尚顏 (1553~1623)		293字	『泰村集』卷5 效 嘸雜記下 餘話	『文叢』 59-270a	
136.	[余之處世]	高尚顏 (1553~1623)		122字	『泰村集』卷5 效 嘸雜記下 餘話	『文叢』 59-284d	
137.	[知子莫如父]	高尚顏 (1553~1623)		127字	『泰村集』卷5 效 嘸雜記下 餘話	『文叢』 59-286b	
138.	[特貌之女]	高尚顏 (1553~1623)		159字	『泰村集』卷5 效 嘸雜記下 餘話	『文叢』 59-287a	
139.	寓言 1	李瑞雨 (1633~?)		約110字	『松坡集』卷19	延世大學校 所藏	豹謂~不辭而去
140.	寓言 2	李瑞雨 (1633~?)		約300字	『松坡集』卷19	延世大學校 所藏	齊之替~不罪其失也
141.	寓言 3	李瑞雨 (1633~?)		約400字	『松坡集』卷19	延世大學校 所藏	魯之富人~利者也
142.	寓言 4	李瑞雨 (1633~?)		約300字	『松坡集』卷19	延世大學校 所藏	楚襄~荒也哉
143.	寓言 5	李瑞雨 (1633~?)		約300字	『松坡集』卷19	延世大學校 所藏	管仲~國殆已

番號	題目	著者及編者	著作時期	字數	收錄文獻	資料情報	特記事項
144.	寓言 6	李瑞雨 (1633~?)		約220字	『松坡集』卷19	延世大學校 所藏	秦繆公~伯樂也
145.	寓言 7	李瑞雨 (1633~?)		約240字	『松坡集』卷19	延世大學校 所藏	楚人~諸鳥乎
146.	玉京仙人 寄東海居士書	李瑞雨 (1633~?)		約700字	『松坡集』卷19	延世大學校 所藏	
147.	擬封牡丹 爲花王詔	李瑞雨 (1633~?)		約180字	『松坡集』卷19	延世大學校 所藏	
148.	擬牡丹謝 封花王表	李瑞雨 (1633~?)		約340字	『松坡集』卷19	延世大學校 所藏	
149.	擬水部車 龍謝拜水 陸轉運使 表	李瑞雨 (1633~?)		約410字	『松坡集』卷19	延世大學校 所藏	
150.	擬唐羅公 遠請遊月 宮表	李瑞雨 (1633~?)		約380字	『松坡集』卷19	延世大學校 所藏	
151.	虎橄	李光庭 (1674~1756)		276字	『訥隱集』卷6 雜 著	『文叢』 187-236	
152.	[虛名]	李光庭 (1674~1756)		203字	『訥隱集』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30	亡羊錄 無題 二一話 中 其一
153.	[甌鵲相妬]	李光庭 (1674~1756)		312字	『訥隱集』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30	亡羊錄 無題 二一話 中 其一
154.	[鼯鼯之貪]	李光庭 (1674~1756)		427字	『訥隱集』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31	亡羊錄 無題 二一話 中 其四
155.	[網士得大人]	李光庭 (1674~1756)		302字	『訥隱集』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32	亡羊錄 無題 二一話 中 其五
156.	[物相畏忌 以存]	李光庭 (1674~1756)		325字	『訥隱集』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32	亡羊錄 無題 二一話 中 其六
157.	[鄙氓效殺 人]	李光庭 (1674~1756)		575字	『訥隱集』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33	亡羊錄 無題 二一話 中 其八
158.	[蟹醬]	李光庭 (1674~1756)		425字	『訥隱集』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33	亡羊錄 無題 二一話 中 其九
159.	[老婆五樂]	李光庭 (1674~1756)		3925字	『訥隱集』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34	亡羊錄 無題 二一話 中 其十
160.	[虎睨]	李光庭 (1674~1756)		345字	『訥隱集』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38	「亡羊錄」無題 二 一話 中 其十一
161.	[蚓與蟬]	李光庭 (1674~1756)		250字	『訥隱集』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38	「亡羊錄」無題 二 一話 中 其十二

番號	題目	著者及編者	著作時期	字數	收錄文獻	資料情報	特記事項
162.	[費氏直婚]	李光庭 (1674~1756)		347字	『訥隱集』 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38	「亡羊錄」無題二 一話 中 其十三
163.	[鼠與貓]	李光庭 (1674~1756)		425字	『訥隱集』 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39	「亡羊錄」無題二 一話 中 其十四
164.	[殺豕試友]	李光庭 (1674~1756)		475字	『訥隱集』 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39	「亡羊錄」無題二 一話 中 其十五
165.	[道學先生]	李光庭 (1674~1756)		525字	『訥隱集』 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40	「亡羊錄」無題二 一話 中 其十六
166.	[殿郎之敗]	李光庭 (1674~1756)		702字	『訥隱集』 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40	「亡羊錄」無題二 一話 中 其十七
167.	[鷹蜂之家]	李光庭 (1674~1756)		229字	『訥隱集』 卷21 謾錄·亡羊錄	『文叢』 187-542	「亡羊錄」無題二 一話 中 其二十一
168.	駙鼠說	沈翼雲 (1734~1782?)		字	『百一集』	奎章閣 所藏	야서혼 설화를 문 인관료의 삶에 대 비시킴 . .
169.	大小說	沈翼雲 (1734~1782?)		字	『百一集』	奎章閣 所藏	큰 뱀은 신령하다 고 살려주고, 작 은 뱀은 불길하다 고 죽임.
170.	三人共馬	沈翼雲 (1734~1782?)	18世紀	約120字	『江天閣消夏錄』	國立中央圖 書館 藏(筆寫本)	「雜說四則」其一 成倪, 『慵齋叢話』, <三人共馬>
171.	廉夫震死	沈翼雲 (1734~1782?)	18世紀	約70字	『江天閣消夏錄』	國立中央圖 書館 藏(筆寫本)	雜說四則」其二
172.	人慾	沈翼雲 (1734~1782?)	18世紀	約80字	『江天閣消夏錄』	國立中央圖 書館 藏(筆寫本)	雜說四則」其三
173.	二盜之盟	沈翼雲 (1734~1782?)	18世紀	約130字	『江天閣消夏錄』	國立中央圖 書館 藏(筆寫本)	雜說四則」其四
174.	觀市說	尹 愔 (1741~1826)		574字	『無名子集』 冊1 文稿	『文叢』 256-185	古語曰一犬吠形, 百犬吠聲。形而走 者市之驚竄跡者 也。聲而走者市之 隨而走者也。不但 聲而走。又有以無 聲之聲自走而走, 人人之走者又不 自知其何爲而走 也

番號	題目	著者及編者	著作時期	字數	收錄文獻	資料情報	特記事項
175.	買刀說	尹 愔 (1741~1826)		994字	『無名子集』 冊1 文稿	『文叢』 256-185	허접한 칼이 보검 보다 쓰임새가 많 다는 역설
176.	名解	尹 愔 (1741~1826)		738字	『無名子集』 冊1 文稿	『文叢』 256-186	명성으로 글의 가 치가 정해진다는 일화
177.	觀舟說	尹 愔 (1741~1826)		1,382字	『無名子集』 冊1 文稿	『文叢』 256-189	一往一來而不言 之妙於焉而寓。 達而觀之則吾與 舟均是其中之一 物耳。又焉有所 擇哉。今欲以尾 閭焦土之說而窮 其極則誕也。以 坐井守株之見而 拘於泥則惑也。 噫其難言也。夫 子曰天行健君子 以自強不息。吾 於觀舟而有感。
178.	[蛛蜂見敗]	尹 愔 (1741~1826)		145字	『無名子集』 冊5 文稿	『文叢』 256-249	「雜說三」中 其一
179.	[笞猫放之]	尹 愔 (1741~1826)		132字	『無名子集』 冊5 文稿	『文叢』 256-249	「雜說三」中 其二
180.	[老狗陰恨]	尹 愔 (1741~1826)		122字	『無名子集』 冊5 文稿	『文叢』 256-249	「雜說三」中 其三
181.	[害人之才]	尹 愔 (1741~1826)		625字	『無名子集』 冊5 文稿	『文叢』 256-249	客有好事者 爲 余談古 盖寓言 也 因記之」
182.	[奴僕負主]	尹 愔 (1741~1826)		411字	『無名子集』 冊 11 文稿	『文叢』 256-468	「客有談古事者 聊記之」
183.	[狐蛇之報 恩]	尹 愔 (1741~1826)		1,092字	『無名子集』 冊 11 文稿	『文叢』 256-468	「客有談古事者 聊記之」
184.	[貧家子效 侈]	尹 愔 (1741~1826)		324字	『無名子集』 冊 11 文稿	『文叢』 256-469	「客有談古事者 聊記之」
185.	[欺人橫財]	尹 愔 (1741~1826)		479字	『無名子集』 冊 11 文稿	『文叢』 256-469	「客有談古事者 聊記之」
186.	貧富說	尹 愔 (1741~1826)		742字	『無名子集』 冊 12 文稿	『文叢』 256-501	부자를 욕하는 객 에 대해 경제관을 피력

番號	題目	著者及編者	著作時期	字數	收錄文獻	資料情報	特記事項
187.	記夢	尹 愔 (1741~1826)		809字	『無名子集』 冊 13 文稿	『文叢』 256-548	생활고의 회한을 나이 팔십에 상계 의 재판으로 표현.
188.	抒厠者說	尹 愔 (1741~1826)	1826	186字	『無名子集』 冊11 文稿	『文叢』 256-584	몽장수와 도굴꾼의 수작. 전도된 가치관
189.	心史(上)	李源祚 (1792~1872)		773字	凝窩集 續集 卷13 雜著	『凝窩全集』, 麗江出版社, 1986, 347面.	有并序. 金字頤 <天君傳> 參考.
190.	心史(下)	李源祚 (1792~1872)		1438字	凝窩集 續集 卷13 雜著	『凝窩全集』, 麗江出版社, 1986, 348面.	
191.	擬漢賜疏 廣金二十 斤詔	李源祚 (1792~1872)		440字	凝窩集 續集 卷13 雜著	『凝窩全集』, 麗江出版社, 1986, 359面.	
192.	宋拜程頤 爲崇殿說 書制	李源祚 (1792~1872)		379字	凝窩集 續集 卷13 雜著	『凝窩全集』, 麗江出版社, 1986, 360面.	
193.	弔竹枕文	李源祚 (1792~1872)		184字	凝窩集 續集 卷13 雜著	『凝窩全集』, 麗江出版社, 1986, 360面.	
194.	神明舍記	李源祚 (1792~1872)		483字	凝窩集 續集 卷17 記	『凝窩全集』, 麗江出版社, 1986, 470面.	有後識. 南冥集 神明舍圖本寓言 也 若圖象則泛 而不切
195.	空中樓閣 記	李源祚 (1792~1872)		448字	凝窩集 續集 卷17 記	『凝窩全集』, 麗江出版社, 1986, 471面.	
196.	種松說	李源祚 (1792~1872)		403字	凝窩集 續集 卷19 說	『凝窩全集』, 麗江出版社, 1986, 495面.	松與竹貫四時不 改
197.	無是公傳	李源祚 (1792~1872)		388字	凝窩集 續集 卷20 傳	『凝窩全集』, 麗江出版社, 1986, 535面.	無是公與烏有先 生子虛子爲友 相得甚驩
198.	雜說	許 傳 (1797~1886)		1100字	『性齋集』 卷10 雜著	『文叢』 308-220	개, 이, 여우, 까치
199.	續出師表	許愈 (1833~1904)		674字	『后山集』 卷15 表	『文叢』 327-331	
200.	寓言(庚辰)	李沂 (1848~1909)	1880	126字	『李海鶴遺書』 卷9 雜著	『文叢』 347-101	옥황상제의 칙서. 가뭇과 홍수의 견책.
201.	釣魚者說 (丁卯)	李沂 (1848~1909)	1867	512字	『李海鶴遺書』 卷9 雜著	『文叢』 347-101	바다메기